범어사, 백중기도 회향 및 영산회상도 점안

백중기도 회향서 새 불화 3점 점안
기존 불화, 보존 위해 박물관 이관
새 불화, 천연석채 전통 기법 조성
새 불화조성 권영관 불모에 감사패
기도기간 14명 법사 스님들 설법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총림 범어사가 8월 15일 경내 일대에서 '2022 백중 지장기도 회향 및 대웅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0일 동안 이어온 백중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범어사는 8월 15일 경내 일대에서 '2022 백중 지장기도 회향 및 대웅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석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의 증명으로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신중탱화 점안식으로 시작했다. 3점의 불화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로 보존을 위해 지난 5월 범어사 성보박물관으로 이관했다. 특히 석가영산회상도는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던 중 불화 배면(背面)에서 사리 4과가 발견돼 화제가 됐으며 지장백중기도 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백중기도 회향 후 범어사성보박물관에서 상시전시를 열고 있다.

범어사는 여법한 보존을 위해 이관된 대웅전 불화 3점의 모사본을 새롭게 봉안하고 90일간 백중 지장기도를 이어왔다. 대웅전에 새롭게 봉안한 탱화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5호 권영관 불화장이 불사를 진행했으며 천연석채를 활용한 전통기법으로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사시불공 및 백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지유 대종사의 법문에 이어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이 인사말을 전했고, 권영관 불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관음시식이 이어졌으며,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영산재 공연을 펼쳤다.

방장 지유 대종사는 법어에서 "지옥에 가면 괴롭고 천상에 가면 즐겁다. 하지만 깨달으면 지옥이든 천상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한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해지고 한마음이 흐리면 세계가 흐려진다"며 "마음으로부터 우주 삼라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각 하나가 세계이다. 그 한 생각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올해는 백중기도 회향과 함께 대웅전의 탱화 조성불사까지 완수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백중을 맞이하게 되었다. 범어사 경내는 모두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전각에서부터 불상, 불화를 비롯해 나무 기둥, 기와 한 장 그 어느 것도 쉽게 모셔진 것이 없다. 우리 범어사 스님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이 귀중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또 후대에도 무사히 전승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신 탱화는 잘 보존하여 오롯이 과거의 역사를 남길 것이며 새로 대웅전에 모신 탱화는 여법하게 법당을 장엄하며 여러분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훗날의 역사를 새겨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관음시식과 영산재 이후 스님들과 불자들은 소대로 이동해 위패 소지의식과 염불로 법석을 회향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 기도 기간 동안 특별법석을 펼쳐왔다. 이번 해는 백중기도 기간 동안에는 前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한 14명의 법사 스님들이 설법을 이어간 '2022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진행했다.

고담정토문화원, 금정구청에 300만 원 · 쌀 1000kg 기탁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기탁식'
매년 기도 성금으로 이웃돕기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이사장 고담)이 8월 16일 부산 금정구청 3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고담정토문화원은 매년 백중 기도를 회향하며 기도 성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금정구청에 성금 300만 원과 쌀 1000kg을 기탁하며 소외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기탁식에는 이사장 고담 스님과 범성천불정사 법사를 비롯한 신도들과 김재윤 금정구청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자가 동석했다.

이사장 고담 스님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보시금과 백미를 전달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소외 이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이웃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이 나눔은 곧 우리 자신에게 베푼 것과 같다"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고담 스님의 나눔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외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은 천불정사 산하기관으로, 부산 금정구에서 반찬 나눔, 쌀 나눔, 성금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고시생을 위한 인재불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하사 · 연제구, 콘텐츠 개발 협약

10월~12월 매월 첫 주 주말에
시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진행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와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가 8월 17일 연제구청에서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하사는 부산시민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불교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은 다양한 전통자원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에 쉼을 선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주석수 연제구청장, 안정호 연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정산 스님은 "마하사는 연제구에 위치한 중요 전통 사찰이다. 문화적 컨텐츠로 삼기에 충분히 뛰어난 가치가 있다"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에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사찰과 협력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 같다"며 "연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함께해준 마하사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마하사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말에 진행된다. 연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40명 선착순이며 상설프로그램은 마음챙김(화두 챙김)이며 공통프로그램은 그룹명상, 걷기명상, 절명상이다. 특화프로그램은 소리명상인 사운드배스, 불화컬러링 및 만다라그리기 등 아트테라피, 다도명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혜 스님 첫 그림 전시회 열어

9월 1~8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茶향이 절로 寺로' 출판기념회도


보혜 스님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9월 1일부터 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소전시장 1층)에서 '茶향이 절로 寺로 보혜스님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스님은 첫 전시인 이번 전시에서 바다와 찻자리, 도자기 그리고 새가 담긴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고요하고 청정하게 맑은 수행자를 닮은 푸른 눈, 청안(淸眼)과 관세음과 대세지 전생의 이름인 조리와 속리 등 작품 이름에 불교적 내용을 담았다. 새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새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을 선물하는 마음을 담았다. 또 도자기는 비워져 있다. 비움을 통해 채울 수 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담고자 했다"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보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차와 글을 통해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많은 예술인과 인연을 맺어 후원하고 문화로 연결된 삶을 지향했다. 차와 글, 연극, 음악 그리고 그림까지 스님의 문화 인연은 다양하다. 스님의 그림은 (사)부산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BAMA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화가들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그림을 보며 소통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스스로 그림을 그릴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주한 스님의 마음을 비춰낸 결과물이다.

보혜 스님은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했고 인연들의 권유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면 거짓처럼 생각됐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서 마주하는 마음의 소통을 그림을 그리며 표현하고 느낄 수 있었다. 작품을 하는 동안 느껴진 삼매의 환희는 시간과 공간을 사라지게 했다.


조리(早離)와 속리(速離) 2022년. 수채화 물감. 수성색연필. 31.5×41cm

"처음 그림을 그린 날 오후 7시에 붓을 잡았는데 창밖을 보니 환하더군요. 아침 7시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계를 보며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일과를 마치고 그림을 그리면 시간 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전시는 스님이 처음으로 여는 그림 전시이며 청량사 불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현재 스님은 새롭게 불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전과 함께 문화관을 설립한다. 대웅전은 전통식으로 짓고 문화관에는 교육관과 야외공연장, 카페 갤러리, 루프탑 공간이 자리할 예정이다. 문화관을 통해 스님은 문화와 종교가 하나가 된 화합체로 '동행'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문화관 건물은 연꽃이 활짝 핀 형상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보혜 스님은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성장하는 장소로 회향되길 기원한다. 문화 예술과 종교가 하나 되어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동행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픈 행사는 9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오픈 행사에서 보혜 스님은 시집 제4권 〈茶향이 절로 寺로〉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 특히 스님과 인연을 맺은 임상진, 박경묵 화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보혜 스님은 "불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임상진 화백의 그림을 평소 좋아했다. 또 묵화로 그림을 그리고 선(禪)적인 작품을 그리는 박경묵 화가도 좋아해 인연이 되었다"며 "화가들을 후원해왔는데 이번에 한 점 정도씩 찬조를 받게 됐다. 문화로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